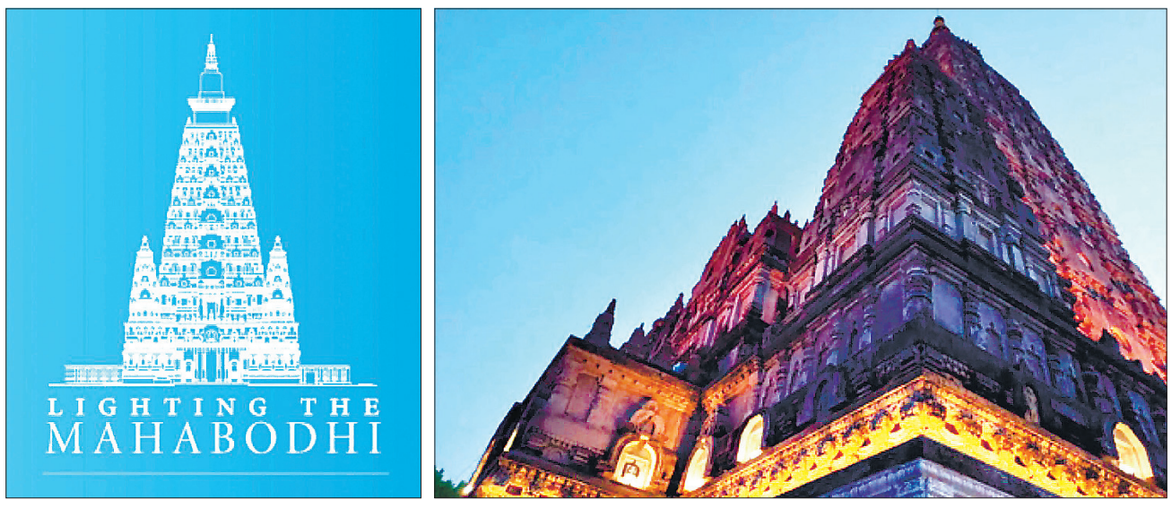
마하보디 사원, 웅장한 빛으로 장엄

종사르 켄체 린포체 추진
'마하보디의 빛' 프로젝트
거대조명 설치 작업 본격화
10월 완공해 대중공개 계획



마하보디사원을 최첨단 · 친환경 빛으로 장엄하는 프로젝트가 올 10월 대중에 공개된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박정현 객원기자

저명한 부탄 승려이자 영화 제작자 겸 작가인 종사르 켄체 린포체(Dzongsar Jamyang Khyentse Rinpoche)가 설립한 '켄체 재단'은 '마하보디의 빛'(Lighting the Mahabodhi) 프로젝트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마하보디의 빛'은 인도 보드가야에 위치한 마하보디 사원을 최첨단 · 친환경 조명 시스템으로 장식하는 프로젝트다. 켄체 재단은 최근 이를 위한 모금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 10월께 대중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5월 4일(현지시간) 불교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tst door)에 따르면, 켄체 재단은 약 1년 전 착수한 '마하보디의 빛'의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조명 설치를 위한 예산이 모금을 통해 전액 확보됐다"며 "예정된 일정에 따라 작업에 착수, 올 10월 장대한 기념식을 갖고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마하보디의 빛'은 켄체 재단과 바나(Vana) 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싯다르타 인텐트 인디아(Siddhartha's Intent India)가 진행한다. 싯다르타 인텐트는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1986년 설립한 국제적 불교 단체로, 부처님 가르침을 번역 및 편집하고 이를 배포, 보관 · 연구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유례없는 불교 성전 조명 설치 사업으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궁극적 목표는 성전 내 오래된 조명과 전기 시스템을 정비해 역사상 가장 장대하고 지속가능한 불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다. 앞서 2015년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2017년 보드가야 사원 관리위원회(the Bodh Gaya Temple Management Committee)와 가야 지사의 승인을 받아냈다. 이에 켄체 재단은 지난해 3월 26일 해당 사업에 공식 착수했다.

켄체 재단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불교의 가장 신성한 성전 인근에 2500m의 참호를 팠다. 여기에 3000m 높이의 이중벽 파형관, 400개의 고효율 LED 전구, 100m 높이의 LED 스트립 조명, 60개의 코스트톱 조명, 125개의 멘홀과 뚜껑, 1만6000m 높이의 전기 케이블과 방화선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 모든 것들을 비롯해 훨씬 더 고품질, 최첨단, 친환경적 전기와 조명 시스템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이곳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를 뒤덮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작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켄체 재단은 일정대로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켄트 재단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0월에 세계적 수준의 전기 인프라와 마하보디 사원 내 모든 부분을 비추는 600개의 조명이 공개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 빛이 평화와 조화, 번영, 자연과 하나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상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해당 프로젝트의 취지에 대해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우리의 가장 귀중하고 사랑받는 마음, 항상 빛을 발하는 마음을 바친다"며 "마하보디 사원에 설치되는 조명도 그러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불교 성지순례지 중 가장 신성한 곳으로 꼽히는 마하보디 사원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전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부다가야에는 부처님이 정진했던 보리수나무 터를 비롯해 7개의 불교 성지가 있다.

일본 불교계, 관욕 등 봉축 행사도 생중계

참배 · 예불 원격으로 진행
자택에서 사불 · 사경 권유



원격으로 관욕식을 생중계한 치카이 스님(좌) 사진출처= 유튜브, 야후재팬 뉴스

코로나19의 완전종식이 아직 요원한 가운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선 정부가 '3밀(밀폐공간 · 밀집공간 · 밀접접촉)'을 피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한주 간 일본불교계의 다양한 노력을 '마이니치 신문' '아사히 신문' 등 주요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4월 27일 마이니치 신문은 특별한 관욕식에 대해 보도했다. 기타큐슈시에 소재한 정토진종의 사찰 에이묘지(永明寺)의 주지인 마츠자키 치카이 스님은 준비했던 관욕식이 코로나19로 취소되자 트위터를 이용, "리트윗(트위터를 공유하는 것)의 수만큼 주지인 내가 아기 부처님에게 관욕식을 행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겠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독특한 발상에 화제가 된 게시물이 급속도록 확산되면서 총 리트윗은 3만 2,551회를 기록했다. 치카이 스님은 "이 숫자만큼 관욕식을 모두 봉행하겠다"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관욕이 1,600회를 넘어가면서, 인근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관욕식을 돕기 위해 참석, 이틀에 걸쳐 총 13시간의 관욕식을 마쳤다.

한편 28일 '야후 재팬 뉴스'는 고베시에 소재한 진언종의 고찰 스마데라(須磨寺)의 원격 기도봉행 소식을 전했다. 스마데라측은 사찰의 홈페이지에 A4 2장 분량의 사경용지를 올리고 사경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데라의 부주지 코이케 요진 스님은 "옛날 헤이안 시대에 역병이 돌자 코보(弘法)대사가 일왕에게 사경을 하도록 권하고, 그 경전을 불전에 올려 병을 물리쳤다는 고사가 있다. 사경을 마친 경전을 스마데라에 우편으로 보내주면, 이를 불전에 올리고 매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축원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비슷한 예로, 일본불교의 성지인 고야산 콘고부지(金剛峰寺)측은 사불을 권유했다. 색칠을 마친 사불용지를 콘고부지로 보내면, 콘코부지에서 이를 모아 하나의 만다라로 만들어 불전에 올리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할 예정이다.

또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3일 이바라키현에 소재한 조동종 사찰 다이오인(大雄院)의 예를 보보도했다. 다이오인은 올해 개산 55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으나, 결국 모두 취소됐다.

이에 다이오인의 주지 미나미 슈텐 스님은 역시 홈페이지에 사경과 사불 용지를 게시하고, 이를 완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동참자에게는 다이오인 개산 550주년 기념품과 참배를 인증하는 주인(朱印)을 답례로 보내준다. 역시 인터넷 상에서 화제를 몰며 일본 전국에서 동참자가 나오고 있다. 다이오인 측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부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발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사찰 '호신부 마스크' 제작

착용자 심신 안정까지 고려
10만장 이상 국 · 내외 배포



직접 제작한 호신부 마스크를 설명하는 스님. 사진출처=닛폰 뉴스 네트워크 방송화면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태국에서는 사찰에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착용자의 심신 안정까지 생각한 호신부 마스크가 등장해 화제다. 지난 4월 27일 '야후 재팬 뉴스' '닛폰 뉴스 네트워크' 등은 사찰에서 제작하는 호신부 마스크를 보도했다.

태국 중부의 나콘파톰(Nakon Pathom)시에 소재한 왓 파이롬 사원. 이곳에서는 마스크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마스크 제작이 한창이다. 마스크는 제작에서 포장까지 모두 사찰의 사부대중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왓 파이롬 사원측은 "태국 내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직접 제작에 나섰다. 이 천들은 재활용 플라스틱병에서 뽑아낸 섬유로 환경보호적인 면도 생각했다"고 전했다.

기존에 가사와 동일한 황색으로만 제작하던 마스크는 대중들의 수요에 따라 붉은 색과 카키색 등의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곳의 마스크는 마스크의 정면에 보호주(paritta)가 인쇄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마스크의 좌우에 악령을 물리친다고 하는 야크샤(yaksha; 야차)의 모습이, 가운데에는 보호주가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그려져 있다.

사원측은 "어려움에 인내하고, 멀리 나아가서는 안전할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메시지가 담겼다"며 보호주의 내용을 설명했다. 완성된 마스크들은 대중스님들의 축복기도를 마치고 배포된다.

현재 왓 파이롬 사원의 작업장에선 10만장 이상의 마스크가 제작 됐으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 마스크의 일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태국인 불교도들의 요청에 응해 해외에도 보내졌다. 박영빈 객원기자

말레이시아 불교협, 온라인 베삭데이

불자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유튜브로 관욕식 영상 등 제공


말레이시아 불교협회가 온라인 베삭데이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해 화제다. 사진출처=더스타

말레이시아 불교협회(the Malaysian Buddhist Association, MBA)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베삭데이 행사가 취소되자, 불자들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말레이시아의 영자 신문 더 스타(The star)의 5월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MBA는 '손에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한 공생'이라는 제목의 베삭데이 기념 특별 불교 교육 시리즈물과 함께 관욕식 영상을 제작했다.

지준(Ji Zun) MBA 명예총재는 특별 불교 교육 시리즈물과 관련해 "8개의 베삭데이 관련 주제를 공유하기 위해 다년 간 다르마를 연구해 온 저명한 승려들을 특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8개 주제는 '불교에서 3가지 주목할 만한 기념 행사' '불교 달력 계산법' '불교의 깃발과 숭고한 8가지의 길' '베삭데이 기념' '부처님의 친절한 정신' '사원과 행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등이다.

또한 MBA는 6일(현지시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베삭데이 기념 부처님 관욕식과 찬불식을 방송했다. 베삭데이 당일인 7일(현지시간)에는 생방송 인터뷰도 진행됐다.

지준 MBA 명예총재는 "대중들은 직접 관욕식을 하기 위해 사찰에 찾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게재한 동영상들을 통해 성스러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불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 · 법 · 승 삼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경외심을 키우고 내면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관욕식을 하면서 전 세계 평화와 코로나19의 박멸을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현대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관상 최고위과정


원장/책임교수 奭廈(석하) 소재학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박사 1호
명리학자(석박사과정 공식전공 사주명리학박사 1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교수, 한국동양미래학회 회장
국제미래학회 및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동양미래위원장
ROTC중앙회 부회장/ 논설위원, 한국풍수문화원 원장
건곤(乾坤)풍수지리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포럼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 biz) 자문위원 역임
한컴그룹 자문, 서울신문STV그룹 고문, GFCA 원장
동양미래예측 풍수지리 컨설팅그룹 회장
동방대학원 교수 및 발전위원장 역임
성공과 실패시기 규칙적으로 예측가능한 동양미래예측학 창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10기) 5/6, 5/13(수)개강특강
나갈때와 물러날 때 찾는 지혜, 현대사주학(지동설 명리학)
성공과 실패의 시기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위과정
과학화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마스터 과정
·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때(Timing)를 찾아라!
·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필수 과정
· 慧眼(혜안)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명리학, 왕초보도 1년이면 OK!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다.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 근거없는 비법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모든 이론 정확한 성립원리 공부
· 인연법, 궁합법 이유 없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 정확히 분석
·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 타고난 선천 성격 진로적성 분석법
· 현대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강사 및 진로적성상담사 자격과정 겸비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어렵지 않게 성공시기 분석
* 마스터까지 무료 반복 수강
※수업 매주 수(水) 18:30 ~ 21:00

풍수지리 최고위과정
(7기) 5/11, 5/18(월)개강특강
내 땅 내가 본다. 풍수지리의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비법 찾아 평생 허비하며 수만금 들여도 답 없는 풍수지리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제대로 된 기본 개념과 원리 위주 수업
<대한민국 풍수지리 최고의 교수진 직강>

책임교수 소재학 박사 | 지도교수 정경연 박사 | 지도교수 지종학 박사 | 지도교수 세 준 박사 | 지도교수 서백도 박사
· 100세 시대 풍수지리는 제대로만 배우고 활용한다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의 학문
· 부동산 풍수, 양택 풍수, 음택 풍수, 기(氣)풍수, 생기(生氣) 흐르는 좋은 자리 찾는 법, 살기 수맥 피하고 막는 법 외
풍수도 논리로 푼다. 자연과학 풍수지리
※수업 매주 월(月) 18:30 ~ 21:00

관상 최고위과정 2기
(2기) 5/7, 5/14(목)개강특강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술 관상
왕초보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강의
행운 부르는 좋은 인상 만들기

책임교수 소재학 박사 | 주임교수 노승우 | 초빙교수 신기원 | 지도교수 이문학 | 지도교수 정민이
실제 얼굴 모습과 영상, 사진자료 활용한 사례 위주 수업
※수업 매주 목(木) 18:30 ~ 21:00

각 과정 2학기 수업 민간자격증 과정 겸비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GFCA 최고위 사무국 02-3443-4984 www.gfca.kr
YouTube 소재학 교수의 때를 찾는 지혜